

# 이용섭 시장 “확진자 부주의 무책임 지속시 3단계 검토”

### 3단계 준한 거리두기 행정명령도 ‘확진자’ 감소 효과 없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6일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에도 뚜렷한 ‘확진자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시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현재의 준 3단계 시한인 10일 대응단계를 낮추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3단계 격상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 이후 10일 동안 87명(1일 평균 8.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국밥집과 기원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곳들이 새로운 감염경로로 추가됐으며, 가족·친구·지인 등 가까운 사

람들을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돼 가족 전체가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위험 지역을 방문했거나 증상이 있음에도 검사받지 않고 생활을 유지하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수많은 접촉자를 만들고 지역감염을 확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일부 확진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여러 곳을 돌아다녀 많은 동선과 추가 접촉자를 만들기도 했다.

이 시장은 “이 시점에서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꼭 필요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 외부 활동을 중단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확진자 1명 발생 시 직접비

## 광주시, 양자정보통신 산업 도약 발판 마련

광주시는 디지털경제의 핵심 보안 기술인 양자정보통신 기술의 공공분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는 SK브로드밴드와 공동으로 응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운영’ 사업 공모에 선정돼 공공분야에 안전한 데이터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비 18억원을 투입해 119구급상황실, CCTV관제센터, 교통정보센터 등을 연계한 양자암호통신망으로 카메라 영상 네트워크 보안 강화 및 시스템의 스마트화를 올레말까지 추진·완료할 예정이다.

양자암호통신은 양자의 특성을 이용해 도청이 불가능한 암호키를 생성하는 물리적 보안체계로, 해킹과 도청 위험으로부터 보안이 중요시되는 자율주행차, 금융데이터, 모바일, 군사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망 구축과 4차산업 신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기술산업이다.

광주시는 민선7기 들어 ‘양자 암호화통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광주지역 양자암호통신 기업들의 마케팅 지원과 상용제품 실증을 위한 양자 시험망 구축 사업 추진 등 양자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관련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양자암호통신 시험망이 구축되면 지역 내 양자 정보통신산업의 제품 마케팅 활성화와 국내 양자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광주시가 양자정보통신 산업 육성도시 메카로 우뚝 서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경중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광주거 인공지능(AI) 집적화 단계와 데이터센터 내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자 암호망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며 “이와 연계한 지역 기업들의 양자 관련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에 힘쓰고, 광주가 양자정보통신 산업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양자정보통신 클러스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동구, 생활 속 걷기실천 우수 직원 ‘계단왕’ 선정

광주 동구는 모바일 앱 ‘계단왕’과 연계한 생활 속 걷기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상반기 우수 직원 3명을 선정 발표했다.

동구는 지난 2월부터 청사 건강계단 이용 활성화와 직원들의 생활 속 걷기문화 정착을 위해 모바일 앱 ‘계단왕’과 연계한 걷기실천을 추진했다.

모바일 앱 ‘계단왕’과 연계한 계단걷기는 운동 장비의 구매를 받지 않고 시간, 장소에 제약이 없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 서구,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

광주 서구가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에 따른 효과적인대응을 위해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세자릿수 이상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8월 27일부터 종교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등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는 등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9일부터 전부서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비상근무체계를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급변 비상근무는 코로나19에 직접 관여하는 대응부서(주관부서)와 대응부서의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는 지원부서의 매칭으로 운영된다.

## 남구, ‘장기 미해결·다수인 민원’ 등 한달 내 끝내

광주 남구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소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수인 등이 관련돼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따르는 민원을 한달 내에 신속 처리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상방간 이해관계가 첨예할 경우 민원 해결이 용이하지 않아 장기 미해결 민원으로 남아 있는데다, 행정수요의 다양화로 인해 부서간 업무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민원의 처리 부서를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다.

이에 따라 남구는 민원처리 부서의 총괄 책임자인 6개국 국장과 민원봉사과장, 감사담당관 등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변호사 및 건축사, 주민혁신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 북구, 동행정복지센터 전자출입명부 본격 운영

광주 북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사 방역 강화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9일부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QR코드 전자출입명부(KI-Pass)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동행정복지센터 출입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출입 기록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자는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해 지난 8월 기준 북구의 28개동에서 작성되는 출입자 명단은 하루 평균 93건, 월 2330건으로 파악됐다.

북구는 이번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 광산구, 어린이집에 빨래건조기와 방역물품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 잠마 등 외부환경 변화가 다양한 가운데 광주 광산구는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방역활동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광산구는 어린이집의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아동의 안전과 건강이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습한 날씨로 아이들의 의복, 이불, 수건 등 빨래가 쉽게 마르지 않고, 코로나19와 긴 잠마로 인하여 어린이집 내부 활동이 많아진 현재, 실내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9월 4일 279개소 어린이집에 빨래건조기 구입비용 지원을 완료했다.

또한 광산구는, 코로나19 교차 감염을 차단하고자 시설 내 접촉이 빈번한 자동문 버튼, 출입문, 계단 난간 등 각종 손잡이에 감염 차단 효과가 있는 항균 필름 및 스티커를 부착하여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455개소에 항균필름을 지원했다.

임형택 기자

## 전남도, 대중교통 코로나19 방역실태 특별점검 ‘이상무’



전남도 도로교통과 직원들이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중교통분야 방역·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중교통분야 방역·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을 잘 지

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기 시작하자, 지역 내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에 이어, 지난 4일과 5일 도로교통과 전직원이 휴일을 반납하고 대중교통분야 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점검담당 공무원 모두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했다.

점검결과 지난 8월 점검에서 일부 미흡했던 터미널 방역상황, 택시 손소독제 미비지 등이 개선됐음을 확인했다.

김정환 기자

기동취재본부

---

**본사인사**

---

**이 덕 주**

지역 사회 부  
신안지역국장

2020년 9월 7일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한정승인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2020노단1034 특별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장남규 (47112-1655214)  
최 후 주 소 : 광주 북구 삼정로 10, 404동 702호(두암동, 주공아파트)

위 망 장남규 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0년 9월 7일

공 고 인 : 장정심  
주 소 : 순천시 봉화1길 33, 503동 1703호(조래동, 조례현대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20년 8월 24일  
공 고 기 간 : 2020.9.7 ~ 2020.11.7

한국이노비지움재단  
Korea Innovation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리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 소득구분         | 고소득층     | 4분위      | 3분위     | 2분위     | 저소득층    |
|--------------|----------|----------|---------|---------|---------|
|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 1.1배     | 1.7배     | 2.1배    | 2.7배    | 5.3배    |
| 보험료부담액       | 240,833원 | 125,531원 | 79,147원 | 48,103원 | 26,697원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129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0000